

# 무안군, 민방위 특별검열 평가 최우수상

### 전남도 22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 소요 대비 적정량 수납관리한 점 높이 평가

무안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0년도 민방위 특별검열 평가에서 전남도 22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지난달 29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민방위업무유공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이번 검열에서 ▲민방위 창고 관리 ▲비상급수시설 관리 ▲비상대피계획수립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 읍면의 민방위 창고에 민방위 장비, 방독면, 화생방분대장비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품목별로 분리수납하는 등 소요 대비 적정량을 수납관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시설은 전쟁과 상수도 체계의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원이다"며, "주민을 위해 어떤 위급한 재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과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신안군, 아동지원비 지급

###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980여명 대상

신안군은 코로나19 극복과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월28일 아동 980여명에게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9천6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대상은 9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중 미취학 아동(초등학교 재학 제외)이다.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의 스펠뱅크 계좌 및 별도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

급계좌로 지원되었으며, 9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4월에도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으로 아동 1,060여명에게 40만원 신안 지역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 학교·월야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 '국비 222억 확보'

### 총사업비 318억여 원 투입...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

전남 함평군 학교·월야면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됐다.

함평군은 지난달 29일 지역 학교면과 월야면이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돼 국비 222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정에 따라 총사업비 318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지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함평 학교면 일대에는 총 사업비 203억여 원(국비 70%)을 투입해 1.9km의 우수관을 개량하고 빗물펌프장과 우수지를 신설한다.

하수도 용량이 부족해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월야면 일대에는 국비 81억 원 등 총 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5km에 달하는 우수관을 집중 정비

한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30개소)에서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시침수 예방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 범

람으로 인한 상습 침수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하수도 확충사업비 중 일부(30~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17곳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실시했으며 이중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해 최종 16곳(함평 학교면·월야면, 대구 상동, 대전 둔산동, 청주 북대동, 속초 영랑동 등)을 선정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영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도입

### 영암군,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판매 중단키로

영암군은 오는 29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유통방지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개인 정보 보호 그동안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축협에서만 판매했던 상품권을 대형기관을 확대 실험, 새마을금고, 광주은행과도 협약 체결하여 관내 31개 금융기관에서 판매 및 환전이 가능해진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을 위한 전산 작업으로 인해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의 판매가 일시 중단되나, 월초에 한도 70만원 내에서(개인·법인·단체 동일) 상품권 구입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10월까지 중단되나 상품권 가맹점 환전업무는 가능하다.

영암군은 상품권 발행규모를 작년 75억원에서 금년 3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활용율도 금년 4월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10%로 상향판매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맹점도 1,497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어획물 자동화선별기 설치 수산물 산업 지원

### 위판량 급증 조기 고속선별 작업 어민소득 증대 한 몫



목포시가 지난 9월 중순 해안로에 위치한 목포수협 선어위판장에 조기 등 어획물 자동화선별기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어획물 선별작업의 소요비용 절감과 상품 품질의 균질화로 어민소

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의 2019년 수산지장시설개선사업에 공모,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원 상당을 투입해 어획물 자동화선별기 6대를 설치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비

축 참조기 수매규격 표준화 추진으로 관행적인 고봉입상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선별기 사용 의무화, 선별기 미사용 지역의 물량에 대해 수매대상에서 제외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발 앞서 어획물선별기 설치사업에 대비한 것이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오던 조기 선별을 규격화된 자동화 선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정부비축은 물론 고봉입상방식 지양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기하고 더불어 위생적인 플라스틱 어상지를 사용하여 조기품질 향상은 어업인 소득증대와 조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는 전국 참조기 생산의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생산지로 손꼽히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산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무안군 일로읍 인구 1만 명 돌파

### 18년 만에 증가해

무안군 일로읍(읍장 함경훈)은 지난 8월 오희지구 입주 이후 2개월 간 인구가 약 3,800여명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3년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 1만이 무너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인구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일로읍으로 전입한 인구는 24일 기준 3,831명으로 이중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인구는 2,338명이다. 오희지구에 1,310세대가 전입하였고 한국아텔리움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일로읍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광군, 희망키움통장Ⅱ 4차 신규가입자 12일~29일 까지 모집

영광군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4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가구 기준 1,935,289원) 주거·교육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을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최대 360만 원)을 더한 금액 720만 원과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0월로 분할하여 총 4차례 48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